

U-20 월드컵에 예비 축구스타 '총출동'

이승우 · 잉글랜드 도미니크 솔란케 등 출전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은 그야말로 스타 등용문이다. FIFA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리는 U-20 월드컵은 1977년 튀니지에서 1회를 시작으로 올해 한국 대회까지 21회째다.

총 20번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수많은 축구스타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다ие고 마라도나(1977년 · 아르헨티나), 티에리 앙리(1995년 · 프랑스), 라울 곤살레스(1997년 · 스페인), 리오넬 메시(2005년 · 아르헨티나), 하메스 로드리게스(2011년 · 콜롬비아), 폴 포그바(2013년 · 프랑스) 등이 이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기 위해 각국의 예비 축구스타들이 대회에 참가한다.

먼저 한국에는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가 있다.

이승우는 신대용호의 확실한 에이스다. 그는 13살이던 지난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했다.

2009년 한국유소년축구연맹(KYFA)이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바르셀로나 유스팀 등을 대상으로 초청대회를 만들어 한국 유망주들을 스페인 프로축구 관계자들에게 선보인 것이 계기가 됐다.

그로부터 2년 뒤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한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후베닐 A(17~19세)에 소속된 유일한 1988년생

선수였다.

FIFA의 출전 금지 징계로 인해 한동안 컨디션이 떨어졌지만 이번 U-20 대표팀에서 팀 훈련과 여러 차례 경기를 소화하면서 몸을 풀어들었다.

팀 동료인 백승호(바르셀로나 B)도 자신의 이름을 알릴 체미를 미쳤다. 백승호는 이승우와 함께 34년만의 4강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과 같은 A조에 속한 잉글랜드에서는 도미니크 솔란케가 돋보인다.

솔란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의 유망주다.

첼시 유스 출신으로 뛰어난 득점력이 돋보인다. 2014~2015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스 리그서 득점왕에 오르며 첼시의 우승을 이끌며 일찌감치 눈모장을 찍었다.

지난달 이적료 950만 유로(약 120억 원)의 몸값으로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에 입단한 우루과이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탘쿠르도 눈여겨볼만 하다.

185cm의 탄탄한 체격에 기술, 체력, 패싱력, 수비력 등 미드필더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다는 평가다.

프랑스는 장 케빈 오귀스탱(파리생제르맹)이 있다.

그는 유럽 예선에서 6골을 터뜨리며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득점왕 후보로 손꼽힌다. 큰 키는 아니지만 빠른



발과 드리블 돌파 능력과 문전에서 마무리가 탁월하다. 이밖에 '제 2의 테베스로 불리는 라우타로 마르타네스(아르헨티나)와 일본의 천재 축구 소년으로 불리는 구보 타케후사(FC도쿄)도 이번 대회서 도약을 꿈꾸고 있다. /김민근기자



삼천리자전거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무주덕유산리조트 MTB경기장서

내일부터 21일까지 제25회 삼천리자전거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가 내일과 21일 무주덕유산리조트 MTB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선수 및 관계자 등 2천 5백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대회는 한국산악자전거협회가 주관 삼천리자전거가 주최하고 무주군과 무주덕유산리조트 등이 후원하는 것으로 크로스컨트리와 크로스컨트리 엘리미네이터, 크로스컨트리 릴레이, 다운 힐, 슈퍼더, 4크로스 등의 종목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관계자는 "삼천리 자전거대회는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들이 실력과 취향에 맞는 레이스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등급과 종목을 망라한 국내 최고의 산악자전거대회"라며 "올해도 큰 재미와 만족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회 개최지 무주군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전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반디집 전국 MTB대회, 코리아산악스포츠초산악 MTB대회, 다양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 강군 무주의 위상을 높여왔다. /무주=전문선기자

MLB 오승환, 올 시즌 첫 2이닝 소화

6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오승환(35 ·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올 시즌 처음으로 2이닝을 소화했다.

오승환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4-4로 맞선 9회초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2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지난 14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나흘 만에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올 시즌 처음으로 2이닝을 소화했다.

32개의 공을 던진 오승환은 삼진 2개를 잡아냈다. 지난 7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6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이어갔다.

지난달 19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부터

13경기 연속 비자책 행진이다.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89에서 2.61로 낮아졌다.

세인트루이스 벤치는 4-4로 맞선 9회 마운드를 오승환으로 교체했다.

9회 첫 타자 재키 브래틀라를 우익수 폴 라이오 처리한 오승환은 후속타자 샌디 레온에게 체인지업으로 투수 앞 땅볼을 유도해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오승환은 데본 밀레로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볼카운트 2B2S에서 시속 95마일(약 153km)짜리 직구를 파울을 유도한 후 시속 94마일짜리 직구를 던져 헛손질을 끌어냈다.

연장 10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첫 타자인 조시 러틀리지에게 포수 쪽 뜬 공을 유도했지만, 포수 아디에르 플라나카 이를 놓쳐 출루를 허용했다. /김민근기자

무기 베츠에게 2루수 앞 땅볼을 유도해 1사 2루를 만든 오승환은 더스틴 페드로이아를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오승환 플라나카 배터리는 산더르 보하르츠를 고의4구로 내보내고 앤드류 베닌텐디와 대결을 택했다.

이어진 2사 1, 2루에서 오승환은 베닌텐디를 땅볼로 잡고 실점을 막았다. 오승환이 3루수 방면에 땅볼을 유도했고, 3루수 제드 지코가 넘어지면서 타구를 잡은 후 1루로 정확하게 송구했다.

타선이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경기가 이어졌고, 오승환은 연장 11회 마운드를 맏보우판에게 넘겼다.

연장 12회 보스턴에 결승점을 내주고 4-5로 역전패하며 2연패를 안았다. /김민근기자



고창군킥복싱대회, 내일까지 실내체육관서 개최

제1회 고창군킥복싱협회장배 킥복싱선수권대회(대회장 김준성)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양일 간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고창군킥복싱협회가 주최 ·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 · 중 · 등부 남 · 여 각 4체급, 여성부 4체급, 고등부와 대학원남부 14체급 등 모두 34체급에, 전국에서 프로선수를 포함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고창군체육회가 협찬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무에타이 · 킥복싱 · 격투기 동호인을 통한 대회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안배를 하는 한편 고창군 홍보와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대회는 타 지역 선수 및 스쿼드가 참가하는 경기로서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회는 이를 통해 고창군 내에 무에타이 · 킥복싱 · 격투기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김준성 대회장은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경기를 고창군민들이 직접 보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와 무에타이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국 · 내외 각종대회에서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준성 대회장은 전북 지역에 무에타이와 킥복싱 · 격투기 종목의 보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